

“위성미
PGA 도전
삼가하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클래식 도중 기권한 위성미(16·나이키골프)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나이에 걸맞도록 차진하면서 PGA 무대 도전은 다음으로 미루라”고 충고했다.

빌 드와이어 골프전문기자는 이날 ‘16살짜리에게 컷 통과가 전부 아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사병 증세로 탈진해 기권한 위성미가 현재의 골퍼 가운데 타이거 우즈와 닐 니클로스에 이어 상품가치 3위에 올라 있는 등 분명 상품성이 있지만 지금 무리하게 PGA 컷 통과에 도전할 때는 아니라고 밝혔다.

■ 美 LA타임스 충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이에 맞게 차진하길

PGA 도전을 미뤄야 하는 이유로 타임스는 크게 2가지를 들었는데, 위성미는 이제 16살에 불과하고 골프가 야구나 농구 등 다른 스포츠와 달리 선수 생명이 길다는 점을 들었다. 신문은 특히 위성미를 PGA 무대로 내몰고 있는 세 공범으로 대회 관계자와 언론, 위성미의 부모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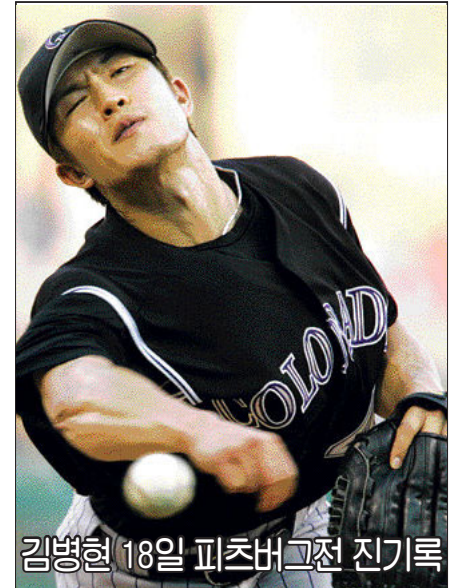
PGA 투어 관계자들은 위성미 본인이나 대회를 위해 출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성미 유지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

타임스는 위성미의 경우 믿기 힘든 재능을 가진 만큼 30세가 되기 이전에 충분히 도전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겠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다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수학문제를 풀면서 대학에 진학해 우즈 처럼 몇년간 다닐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이후에도 세인의 관심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프레드 커피스가 19일 영국 리버풀 로열리버풀링크스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연습라운드 17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김병현 18일 피츠버그전 진기록

투구수 127개

- ① 개인통산 한경기 최다
② 최근 5년간 팀내 최다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6패째를 당한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빅리그 진출 후 개인 통산 한 경기 최다 투구 및 지난 5년간 콜로라도 투수 가운데 최다 투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스포츠전문 통계회사인 ‘엘리어스 스포츠뷰로’는 19일 스포츠웹진 ESPN에 게재한 전날 경기 통계 자료에서 ‘김병현이 개인 한 경기 최다인 127개를 던졌고 역대 콜로라도 투수 가운데서는 지난 2001년 6월27일 마이크 햄튼이 128개를 던진 이후 5년만에 최다 투구를 했다’고 전했다.

클린트 허블 콜로라도 감독이 김병현의 피칭에 대해 “대단한 투구”였다며 극찬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 애리조나 시절이던 지난 2003년부터 선발로 본격 데뷔한 김병현은 이날까지 통산 52경기에서 선발 등판했고 18일 피츠버그전에서 7.1이닝을 던지면서 처음으로 7이닝을 넘겼다. 이전까지 종전 한 경기 최다 투구 이닝은 7이닝이었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170이닝을 채우기 위해 등판 때마다 최소 6.2이닝 이상을 꾸준히 뿌려야 하는 김병현은 후반기 첫 등판에서 7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즈 “달라진 샷으로 챔프 방어”

■ 브리티시오픈골프 이모저모



○“19언더파면 우승하지 않겠어요”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투어 브리티시오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19일 로열리버풀링크스에서 연습라운드를 마친 뒤 자신감을 드러냈다.
19언더파는 2000년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즈가 우승할 때 작성한 스코어.

우즈는 이날 연습에서 더운 날씨 탓에 바짝 말라 있는 페어웨이와 그린에 적응하는 데 고전했지만 “이전 대회 때와는 다른 샷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도박사들이 같은 조에 편성된 타이거 우즈와 닐 팔도가 “티샷 전에 악수를 할까” 하는데 내기를 걸었다.
영국베팅업체 윌리엄 힐에 따르면 도박사들은 우즈와 팔도가 악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6-4, 경기 도중 서로 충돌할 것이라는 데 25-1로 베팅했다.
팔도는 작년 뷰익인비테이셔널 대회 때 ABC 방송에서 해설을 하면서 우즈의 스윙

을 비판했고 이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다.
○2003년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벤 커티스(미국)가 연습을 마친 뒤 골프백을 보관하는 장소에 들어가려다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경호원들이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 쓴 커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수 배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주위에서 “경호원들이 대회 우승자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묻자 커티스는 “그런 것 같다”며 겸연쩍어 했다.
○브리티시오픈에 출전한 대부분의 선

수들이 건조한 날씨로 인한 딱딱한 코스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조프 오길비(호주)와 스콧 버플랭크(미국)는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건조한 코스에서 경기를 많이 한 오길비는 “코스가 딱딱하고 스피드가 빠를수록 나는 더 좋다. 다른 선수들은 이 같은 코스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텍사스 출신의 버플랭크도 “고향에서 경기할 때보다 훨씬 좋다. 생전 처음 이 코스에서 경기를 하게 됐지만 정말로 좋다”고 말했다.



打

〈KIA 이윤규〉

미스터 올스타 타자나 투수나



‘별들의 잔치’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지긋지긋한 장맛비를 시원하게 날려준다.

오는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25주년 기념 2006 삼성 PAVV 올스타전’은 다채롭고 재미있는 행사들로 가득 채워진다.

식전행사로는 오후 2시부터 팬 투표로 선정한 ‘포지션별 최고 올스타’와 이휘재, 유재석, 정준하 등으로 구성된 연예인 야구단 ‘한’의 5이닝 친선경기가 펼쳐진다.

올스타전은 오후 6시에 시작되며 5회까지 매회 종료 후에는 치어 경연대회 결승전, 타자 스피드왕, 홈런레이스 결승전, 동아오츠카 모바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올스타전은 팬 인기투표로 동군(SK, 삼성, 두산, 롯데)과 서군(KIA, 현대, 한화, LG) 10명씩, 감독 추천으로 10명씩, 팀당 20명의 선수가 뛰게된다.

올해 올스타전 사령탑은 동군은 선동열 삼성감독이, 서군은 김인식 한화 감독이 맡았다.

▲파워히터는 누가될까

올해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에는 양준혁(삼성)과 홍성흔(두산), 박재홍(SK), 이대호(롯데), 데이비

프로야구 올스타전 22일 개막
홈런 대결·타자 스피드 킹 선발
선동열(동군)-김인식(서군) 맞대결

●올스타전 출전 선수

Table with columns: 동군, 포지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지명타자. Lists players from SK, Samsung, and Doosan teams.

스, 이범호(이상 한화), 조인성(LG), 이택근(현대) 등 8명이 경쟁한다.

홈런 레이스는 배팅볼로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선수가 이기는 이벤트로, 5어웃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헛스윙을 하거나 타구가 답을 넘지 못하면 아웃이 선언되고 토너먼트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2명은 올스타전 5회가 끝나면 따로 결승전을 치른다.

또 타자들 가운데 최고 어깨를 뽑는 ‘타자 스피드킹’에는 동군에 조동찬(삼성), 손시헌(두산), 이진영(SK), 박기혁(롯데), 서군에 이종범, 이용규(이상 KIA), 정성훈(현대)이 출전한다.

▲미스터 올스타 경쟁도 불거리
올 시즌은 투고타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12년만에 투수중에서 올스타 최우수선수(MVP)인 ‘미스터 올스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스터 올스타’는 경기 당일 기자단 투표로 결정되는데 강한 인상을 원하는 ‘결치’인 만큼 MVP 경쟁에서는 홈런이나 결승타를 때려 ‘총격’을 줄 수 있는 타자가 길어야 3이닝 밖에 던지지 못하는 투수보다 유리하다.

이 때문에 1982년 원년 올스타전 이후 투수 MVP는 1985년 김시진(삼성)과 1994년 정명원(태평양) 뿐이었다.

투수가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탈삼진인 만큼 올해 MVP 후보로 꼽히는 투수는 19일 현재 127개로 탈삼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현진(한화)이 꼽히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投

〈한화 유현진〉